

골라 읽는
모집 요강
논술 전형 2

점점 더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충족해야 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020학년 중앙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50.3:1이었다. 그러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논술 고사에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 경쟁률은 13.7:1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만큼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4개 합 5, 탐구 두 과목 평균 반영 등의 최저 기준은 어떤 의미이며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른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중앙대 논술 전형을 통해 최저 기준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ti1970@naeil.com

도움말 장문성 학력개발원장(종로학원하늘교육) · 전천석 소장(삼선대학입시연구소)

자료 중앙대학교 입학처

수능 1등급은 4%보다 많을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능 등급 충족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분모인 전체 응시자 인원이 줄어들면 분자에 해당하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등은 줄어든다. 그러나 내신과 달리 수능 동점자는 같은 등급을 받는다. 1등급은 정확하게 4%가 아닐 수 있다. 2021학년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은 4.4%였다. <세계지리> 1등급은 13.6%였고 <물리학Ⅱ> 1등급은 11.52%였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2.6%가 1등급을 받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장문성 학력개발원장은 “수능은 최저 기준 충족 비율이 인원수 감소에 따라 비례하지 않는다. 그보다 과목별 등급 컷에 몰린 동점자와 영어의 난도가 중요하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등급별로 인원수의 변화가 매우 크다. 또한 탐구는 만점자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 1등급 비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형 수능의 복병 수학, 선택 과목 유불리 심화시켜

2022학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에서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 수학. 작년 수능 수학까지 인문 계열 학생은 인문 계열끼리, 자연 계열 학생은 자연 계열끼리 등급과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문·이과가 통합된 2022학년 수능부터 수학은 공통 과목 75점+

선택 과목 25점으로 구성되며, 이때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고르게 된다. 경희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자연 계열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도록 지정했다. 따라서 자연 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대다수 <미적분>을 선택하는 추세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995호 ‘선택 과목 유불리 눈치전만 남았다’ 참고).

인문 계열 학생은 수학에서 1, 2등급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 저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대학의 모집 요강입니다.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모집 요강 뜯어보기로 낱알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2022학년 전형 계획으로 살펴본 논술 전형 최저 기준

중앙대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은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에 따라 다르고, 자연 계열 안에서 의학 계열(의학부, 약학부)과 의학 계열이 아닌 자연 계열에 따라 다르다. 많은 대학들도 이렇게 계열별로 최저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니 중앙대 논술 전형을 통해 최저 기준을 읽는 법을 알아보자.

① **영역별 기준 과목** 무슨 과목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의 수학으로 살펴보자. 자연 계열은 '수학(〈미적분〉〈기하〉 중 택 1)'이라고 나와 있다.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중앙대 자연 계열로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인문 계열은 '수학'이라고만 나와 있다. 〈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중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며, 작년까지 수학 가형과 나형 제한 없이 인문 계열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작년까지 수학 가형 점수가 불리해 인문 계열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인문·자연 계열이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자연 계열 학생 중 상경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

② **최저 기준의 조건** 3개 합 6, 4개 합 5, 3개 합 6, 2개 합 5.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삼선대학입시연구소 전 천석 소장은 "영역 수가 많을수록 어렵다. 2개보다 3개가, 3개보다 4개가 더 충족하기 어렵다. 4개 영역을 요구하는 곳은 의학 계열이거나 최상위권 대학들"이라고 말했다. 4개 합 5라면 세 과목에서 1등급을 받고 한 과목에서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충족할 수 있다. 중앙대가 약학부와 의학부에서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2학년과 2021학년의 중앙대 최저 기준은 3개 합 6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수학 때문에 인문 계열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총원율이 전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 수시 논술전형

소재	계열	모집단위	영역별 기준	탐구영역 반영 방법	공통
서울	인문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약학부, 의학부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 1), 영어, 과탐	2과목 평균 반영	
		약학부, 의학부 외 전체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안성	전체	전체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과목별 I+II 중복 선택 불가(ex. 화학 I+화학 II 불가)
*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2학년 논술 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 가천대 가톨릭대(의학 계열)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세종)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의학 계열) 연세대(미래)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의학 계열)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수원대 연세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

③ **탐구 반영 방법** 탐구에서 인문 계열과 약학부·의학부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약학부·의학부를 제외한 자연 계열 전체와 안성캠퍼스는 상위 1과목을 반영한다. 탐구 한 과목은 2등급, 다른 한 과목은 3등급이라고 가정해 보자. 2과목 평균은 2.5등급인데 만약 합 6.5등급이 된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위 1과목 반영은 2등급을 반영하므로 합 6등급이 되면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상위 1과목 반영보다 2과목 평균이 더 어렵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해 반영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 자연 계열은 과탐에서 과목별 I+II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없다. 화학 I과 화학 II로 응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하다.

④ **한국사** 한국사 4~5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은 주로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다. 한국사 4등급이 필수인 대학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미래) 의예과 울산대 의예과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다. 한국사 5등급이 필수인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다. @